

올 대졸실업자 9만5천명

졸업생의 35%...해마다 증가 추세

대졸 실업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14일 문교부가 집계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진로현황에 따르면 88년도 전문학교 이상 대학 졸업생 27만5천7백65명 가운데 직장을 구한 사람은 47.1%인 12만9천8백63명이며 진학자(2만1백28명)와 입대자(3만4백86명)를 뺀 나머지 졸업생 9만5천2백89명은 무직, 미상으로 나타나 대졸 실업자는 전체의 34.5%나 된다.

87년도의 경우 9만2천3백35명이 실업상태로 집계됐고 86년도에는 8만6천8백72명, 85년도에는 7만2백74명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돼 대졸 실업자수는

88.9.15
매년 들어가는 추세이다.

특히 89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정원제 실시 직후인 81·82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대거 졸업하게 돼 대졸 실업자수는 10만명을 훨씬 넘을 전망이다. 이미 졸업한 취업 대기자 10만여 명과 합쳐 내년에는 20만명 가량이 무직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88년 2월 졸업자 가운데 전문대생의 취업률(군입대·진학자 제외)은 45.8%로 일반 대학생의 43.7%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일반 대학생의 경우 국립(35.1%)보다는 사립(46.6%)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